

44과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안에 거하게 하시며 귀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교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교제할 성경말씀을

함께 공부하게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

분명히 알게 하여주시고 또한 묵상을 통하여 충분히 아이들과 교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Pedro y Juan subían juntos al templo a la hora novena, la de la oración.

2.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Y era traído un hombre cojo de nacimiento, a quien ponían cada día a la puerta del templo que se llama la Hermosa, para que pidiese limosna de los que entraban en el templo.

3.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 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Este, cuando vio a Pedro y a Juan que iban a entrar en el templo, les rogaba que le diesen limosna.

4.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Pedro, con Juan, fijando en él los ojos, le dijo: Míranos.

5.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Entonces él les estuvo atento, esperando recibir de ellos algo.

6.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Mas Pedro dijo: No tengo plata ni oro, pero lo que tengo te doy; en el nombre de Jesucristo de Nazaret, levántate y anda.

7.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Y tomándole por la mano derecha le levantó; y al momento se le afirmaron los pies y tobillos;

8.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 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y saltando, se puso en pie y anduvo; y entró con ellos en el templo, andando, y saltando, y alabando a Dios.

9.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밋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Y todo el pueblo le vio andar y alabar a Dios.

10.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Y le reconocían que era el que se sentaba a pedir limosna a la puerta del templo, la Hermosa; y se llenaron de asombro y espanto por lo que le había sucedido

다음주에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제목이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 인데 제목으로 봤을 때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머리돌에서 제시한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3장과 4장이 되겠습니다. 3장과 4장을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학식이나 재능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매우 성급했고 나서기를 좋아했고 별로 능력은 없으면서 야망만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명 두명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목적으로 불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표식으로
물고기를 내민게

아닌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하겠다

마태복음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
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Andando Jesús junto al mar de Galilea, vio a dos hermanos, Simón,
llamado Pedro, y Andrés su hermano, que echaban la red en el mar;
porque eran pescadores.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Y les dijo: Venid en pos de mí, y os haré pescadores de hombres

20절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Ellos entonces, dejando al instante las redes, le siguieron

이렇게 나옵시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때 이후
부터 제자들은

3년 반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하는 그런

이적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난당하시기 직전에 전부다 한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버립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동안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예수님께 꾸지람을 많이 들은 제자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꾸지람을 듣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각별한 제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나십니까? 베드로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위를 걸었잖아요?

바다위를 걸어갑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바다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잖아요?

그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적은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꾸지람을 또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내가 고난을 받았다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의협심이 강한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말을 하지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되게 머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무안했을 겁니다. 민망했겠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3절, 22절부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 Entonces Pedro, tomándolo aparte, comenzó a reconvenirle, diciendo: Señor, ten compasión de ti; en ninguna manera esto te acontezca.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3 Pero él, volviéndose, dijo a Pedro: !!Quítate de delante de mí, Satanás!; me eres tropiezo, porque no pones la mira en las cosas de Dios, sino en las de los hombres.

아주 심하게 뭐라고 하신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굳이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신다고 국구 거절을 합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온 손과 머리로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받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 제사장과 군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트리잖아요?

그 때 예수님이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명해서 12명 되는 천사들을 오게 못할줄을 아느냐? 이렇게 또 뭐라하시죠

계속 혼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하시는 날 밤에 다 도망가버리잖아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감옥에도 죽는데에도 주님을 쫓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닭이 두 번 울기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설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걸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Mas Pedro le seguía de lejos hasta el patio del sumo sacerdote; y entrando, se sentó con los alguaciles, para ver el fin.

69절입니다

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아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Pedro estaba sentado fuera en el patio; y se le acercó una criada, diciendo: Tú también estabas con Jesús el galileo

70.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Mas él negó delante de todos, diciendo: No sé lo que dices.

71.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Saliendo él a la puerta, le vio otra, y dijo a los que estaban allí: También éste estaba con Jesús el nazareno.

72.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Pero él negó otra vez con juramento: No conozco al hombre

73.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Un poco después, acercándose los que por allí estaban, dijeron a Pedro: Verdaderamente también tú eres de ellos, porque aun tu manera de hablar te descubre.

74.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Entonces él comenzó a maldecir, y a jurar: No conozco al hombre. Y

en seguida cantó el gallo.

75.이에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Entonces Pedro se acordó de las palabras de Jesús, que le había
dicho: Antes que cante el gallo, me negarás tres veces. Y saliendo
fuera, lloró amargamente.

3번 부인하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참 우여곡절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꾸질함도 많이 받고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
을 때 베드로는요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되겠다 하고 또 가버리잖아요?

한참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잡히는거예요

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에 그
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 아니야? 하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들어가
지고

침병침병 뛰어 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때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약속받
으려고 하는 것처럼

3번에 걸쳐 물어보셔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에 걸쳐 물어보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거예요 선한 목자였던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로써의 삶을 살 것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Yo soy el buen pastor; y conozco mis ovejas, y las mías me conocen,

15.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así como el Padre me conoce, y yo conozco al Padre; y pongo mi vida por las ovejas.

16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También tengo otras ovejas que no son de este redil; aquéllas también debo traer, y oirán mi voz; y habrá un rebaño, y un pastor.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네게 있어 네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선한 목자로써의 삶을 살 것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선한목자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선한목자로써의 삶을 명령하십니다.

21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Cuando hubieron comido, Jesús dijo a Simón Pedro: Simón, hijo de Jonás, ¿me amas más que éstos? Le respondió: Sí, Señor; tú sabes que te amo. El le dijo: Apacienta mis corderos.

16.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Volvió a decirle la segunda vez: Simón, hijo de Jonás, ¿me amas? Pedro le respondió: Sí, Señor; tú sabes que te amo. Le dijo: Pastorea mis ovejas.

17.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Le dijo la tercera vez: Simón, hijo de Jonás, ¿me amas? Pedro se entristeció de que le dijese la tercera vez: ¿Me amas? y le respondió: Señor, tú lo sabes todo; tú sabes que te amo. Jesús le dijo: Apacienta mis ovejas.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어린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나는 할 일을 다했다. 이제 네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선한목자로써의 삶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신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 버린 겁니다.

사도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이 말씀을 받았고 사도바울도 다메셋 도상에서 이 말씀을 받았고

우리도 성경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명령을 받은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pero recibiréis poder, cuando haya venido sobre vosotros el Espíritu Santo, y me seréis testigos en Jerusalén, en toda Judea, en Samaria, y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내 증인이 되어라예요? 되리라 예요? 되리라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받게 없는 결과물인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릴 것도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De cierto, de cierto te digo: Cuando eras más joven, te ceñías, e

ibas a donde querías; mas cuando ya seas viejo, extenderás

젊어서는 네가 하고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다른사람이 네게 띠 띠우고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늙어서는 네가 네 팔을 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
에요

네 팔을 벌리리라 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잖아요

근데 역시 이 베드로는 끝까지 베드로였습니다. 마지막에도 예수님께 편잔을
들어요

옆에 있던 사람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세요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Volviéndose Pedro, vio que les seguía el discípulo a quien amaba
Jesús, el mismo que en la cena se había recostado al lado de él, y le
había dicho: Señor, ¿quién es el que te ha de entregar?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을 가르키면서 예수님 이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22.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Jesús le dijo: Si quiero que él quede hasta que yo venga, ¿qué a ti? Sígueme tú.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거죠

아무튼 베드로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제자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비로서 베드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거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는 비로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닫게 된거예요

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진거예요 마치 구슬에 실 꿰듯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써가지고

후세에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명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생긴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똑같은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똑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우주를 마음에 품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중요한 근본적인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평생동안 연구하고 노력해서 아는 그 결과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냥 알아요 어떤사람이 진화론의 허구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당연한 거잖아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이렇게 이

야기 하잖아요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지 당연히 창조했다니까? 뭘 고민해? 그쵸?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에 가깝다. 아 성경은 사실이라니까?

사람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한참 고민합니다.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람은 존재하는거예요

북쪽하늘에 불가사의한 허공이 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쵸?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을 창조했고 이 인류역사를 그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평생연구했습니다. 평생 연구해서 정말 자기가 추구했던 그 진리의 정점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정점을 딱 밟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있는거예요 누구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사람의 존재이유와 인생의 목적들을 아는 사람들인거죠

그래서 전 우주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목도했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진리를 알게된 우리들이에요

사도행전 3장 가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자 여기보면 나면서 보면 앓은뱅이 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전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Pedro, con Juan, fijando en él los ojos, le dijo: Míranos.

5.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Entonces él les estuvo atento, esperando recibir de ellos algo.

6.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Mas Pedro dijo: No tengo plata ni oro, pero lo que tengo te doy; en el nombre de Jesucristo de Nazaret, levántate y anda.

7.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Y tomándole por la mano derecha le levantó; y al momento se le afirmaron los pies y tobillos;

8.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 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y saltando, se puso en pie y anduvo; y entró con ellos en el templo, andando, y saltando, y alabando a Dios.

이 나면서 앓은뱅이 된 이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걷는거요? 아니죠 지금바라는건 동전 몇푼을 바라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나면서 앓은뱅이 된 이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죠?

걷는 거죠 뛰는 겁니다. 일어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앓은뱅이는요 자기가 일어서서 걷는다는 것은 자기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날때부터 앓은뱅이 였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그냥 성전미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습관적으로 동전을 구걸하는 것이

이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구하는 것은 별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동전 몇 푼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와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면서 동전 몇 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말을 건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람이 오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거예요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는척 할 수도있고 모른척 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아는 척을 합니다 4절

4.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Pedro, con Juan, fijando en él los ojos, le dijo: Míranos.

6.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Mas Pedro dijo: No tengo plata ni oro, pero lo que tengo te doy; en el nombre de Jesucristo de Nazaret, levántate y anda.

은과 금을 바라는 사람인데 은과 금도 없으면서 먼저 말을 건 이유는 뭘까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은과 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써 내가 얻으면 그 얻게될 기쁨이 은과 금을 얻는 기쁨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건거예요 그것이

웁니까?

앞은뱅이가 일어서는거죠 일어서서 걷고 뛰는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서잖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 담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왜냐면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고 대충 취급할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느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 기죽을 필요가 전혀없는겁니다. 나보다 경제력이 좋고 사회적 신분이 뛰어나고

직장 상사이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이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느거잖아요

그죠? 집안의 어른이고 콩알?같은 남편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림막이 될 수는 없는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더 가치있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거잖아요

앞은뱅이는 설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걷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거잖아요 실제로 전도할 때에 전도되어져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따라올까요?

그래 구원받아야지 하고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 나도 구원받아야지 하지만 그 사람에게겐 그것은 아직 이론이에요 그것이 원지를 몰라요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다할 겁니다.

생명에 대한 단순 호기심 충족 그래 한번 배워보지 뭐

또는 나이먹고 할 거 없으니까 교회나 다녀야지 또는 나도 한번 종교나 가져볼까?

다른 목적일 수도 있겠죠 네가 그렇게 성가시게 하니까 한번 들어준다

또는 니네 교회에 예쁜사람 많아? 이렇게 올 수 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올수 있다 라는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열고 듣기만하면 첫날 둘째날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 거듭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는줄을 몰랐다고

이제 네가 왜그렇게 귀찮게 즐랐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32절 3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2.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어요

A cualquiera, pues, que me confiese delante de los hombres, yo también le confesaré delante de mi Padre que está en los cielos

33.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Y a cualquiera que me niegue delante de los hombres, yo también le negaré delante de mi Padre que está en los cielos.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써 정말 우주를 내 마음속에 품은 사람으로써 우리가 전도할 때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거예요 담대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훨씬더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 앓은뱅이가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다 놀랐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는 것이아니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 가겠습니다. 3장 13절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Viendo esto Pedro, respondió al pueblo: Varones israelitas, ¿por qué

os maravilláis de esto? ¿o por qué ponéis los ojos en nosotros, como si por nuestro poder o piedad hubiésemos hecho andar a éste?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13절입니다

13.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El Dios de Abraham, de Isaac y de Jacob, el Dios de nuestros padres, ha glorificado a su Hijo Jesús, a quien vosotros entregasteis y negasteis delante de Pilato, cuando éste había resuelto ponerle en libertad

14.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Mas vosotros negasteis al Santo y al Justo, y pedisteis que se os diese un homicida

15.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15 y matasteis al Autor de la vida, a quien Dios ha resucitado de los muertos, de lo cual nosotros somos testigos.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Y por la fe en su nombre, a éste, que vosotros veis y conocéis, le ha confirmado su nombre; y la fe que es por él ha dado a éste esta completa sanidad en presencia de todos vosotros.

그러면서 꼭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거예요 전도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되고 갈등을 겪게된다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았고 이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진리를 모르고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못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34.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No penséis que he venido para traer paz a la tierra; no he venido para traer paz, sino espada

35.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Porque he venido para poner en disensión al hombre contra su padre, a la hija contra su madre, y a la nuera contra su suegra;

36.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y los enemigos del hombre serán los de su casa.

미리 말씀하신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되면 전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을 미리다 얘기를 하신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이 두려워

서

우리가 복음전하기를 주저할 수가 없느거예요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웁니까?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잖아요

사도행전 갑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심히 단단히 있었어요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Sin embargo, para que no se divulgue más entre el pueblo, amenacémosles para que no hablen de aquí en adelante a hombre alguno en este nombre.

18.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Y llamándolos, les intimaron que en ninguna manera hablasen ni enseñasen en el nombre de Jesús.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9 Mas Pedro y Juan respondieron diciéndoles: Juzgad si es justo

delante de Dios obedecer a vosotros antes que a Dios;

20.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0 porque no podemos dejar de decir lo que hemos visto y oído.

우리는 보고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죠 5장 한 장 넘겨서요

5장 28절입니다. 5장 28절

28.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 자 함이로다

diciendo: ¿No os mandamos estrictamente que no enseñaseis en ese nombre? Y ahora habéis llenado a Jerusalén de vuestra doctrina, y queréis echar sobre nosotros la sangre de ese hombre.

29절 같이 읽습니다.

29.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Respondiendo Pedro y los apóstoles, dijeron: Es necesario obedecer a Dios antes que a los hombres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는거예요

41절 5장 41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Y ellos salieron de la presencia del concilio, gozosos de haber sido tenidos por dignos de padecer afrenta por causa del Nombre

42.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Y todos los días, en el templo y por las casas, no cesaban de enseñar y predicar a Jesucristo.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사도행전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정말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받아요

우리가 초등부 학생들과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구원 거듭남 영원한 천국에 대한 열망 소망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말씀과 상담을 통해서 우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학생에게는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 이 거듭남 이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해줘야되요 대충대충 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써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맞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물론 초등학생이고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구원받은 어떤 행실이 바로 나타나올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한 거잖
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짧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작고 어려서 철이 없어서 막 뛰어다니지만 정말 교회안에 거하면서
꾸준히

말씀속에서 듣고 자라가다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사를 하는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읽어보겠습니다.

15.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y que desde la niñez has sabido las Sagradas Escrituras, las
cuales te pueden hacer sabio para la salvación por la fe que es en
Cristo Jesús.

16.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Toda la Escritura es inspirada por Dios, y útil para enseñar, para redarguir, para corregir, para instruir en justicia,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a fin de que el hombre de Dios sea perfecto, enteramente preparado para toda buena obra.

지금은 좀 부족하고 어리고 철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말씀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 거듭남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가 정말 이 우주를 마음속에 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되고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게 맞아요
그래서 다음주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복음 그 성령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과 열정이 내 속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

씀과

그 깨우침을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이 복음 이 구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이 깨달음을 이 교훈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가르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주십시오 그래서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교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